

## ◇동측의 종격동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원발성 폐암 [ N2 Non-Small Cell Lung Cancer ]의 외과적 치료

나국주, 오상기, 장원채, 안병희, 김상형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최근 비소세포폐암의 수술성적은 생존율의 현저한 상승을 나타냈으나 아직도 제 3기 폐암에서는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불량하며 동측의 종격동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인 수술적응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과거에 수술을 시행한 N2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치료의 결과를 분석, 고찰하였다.

**방법** : 1987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중 병리학적 병기가 N2IIIA인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결과** : 나이는 39세에서 71세까지 였으며 남녀비는 48:14이었다. 우측폐암이 34례, 좌측폐암이 28례 였으며 T1이 2례, T2가 44례, T3가 14례, T4가 2례였다. 세포형은 편평상피세포암이 38례, 선암이 15례, 기타 세기관지폐포암, 대세포암, 선편평세포암, 육종등이 있었으며 수술은 전폐절제술 33례, 폐엽절제술 21례, 이엽절제술 4례, 소매절제술 4례였다. 종격동임파선 전이는 우측폐암에서는 분기줄하임파절에 가장 흔했고 [ 21/66 ] 그 다음으로 기관기관지임파절 [ 19/66 ] 순이었으며 좌측폐암에서는 대동맥하임파절 [ 14/48 ]에 많았으며 28례에서는 단일 임파절전이가 34례에서는 2곳 이상의 종격동임파절전이가 있었다. 슬후 사망율은 3.1%였고 [ 2/62 ] 원인은 모두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이었으며 수술후 합병증은 애성이 9례, 흉막삼출이 3례, 기타 지속적인 공기누출, 급성심근경색, 급성신부전, 농흉등이 1례씩 발생하였다. 추적관찰은 병원사망한 2례를 제외한 전례에서 가능하였으며 평균추적기간은 54.3개월이었고 병원사망을 포함한 슬후 생존율은 2년 53.7%, 5년 22.7%였으며 평균생존기간은 43.56.12개월이었고 median survival time은 23개월이었다.

**결론** : 동측의 종격동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은 아직은 수술후 만족할만한 장기생존율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술의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술치료가 필요하며 수술후 보조요법으로서 방사선 요법은 아직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책임저자:나국주(전남대학교병원) 발표자:나국주(전남대학교병원)